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8:0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TUESDAY 10:00 A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신앙 성장과 성숙의 주간

건강한 믿음 성장의 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경배와 찬양: 찬양팀과 함께

예배 기도 김 훈 태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9:1-14 (신약 272쪽)

"외면과 오해도 극복하는 사랑"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송 /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오정은, 구 민 집사

봉 봉헌찬송 /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4절

삶과 세상 속으로

* 여기에 모인 우리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 양 과 기도

말씀 사무엘상 2:12-36 / 김성배 목사

"흡니와 비느하스"

삼과 신앙

마태복음 15장에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26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에 결국 그 요청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개들’이라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요구와 기도’에는 아무런 답이 없으실 그때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 됩니다. 그야말로 ‘주님은 왜?’라는 질문밖에는 떠오르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가나안 여인의 대답은 놀랍게도 ‘왜?’(Why)가 아닌 ‘예’(Yes)였습니다.

“예, 주님이 옳습니다.”

‘왜’가 아닌 ‘예’라는 여인의 대답이 주님의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피즐을 맞춰본 적이 있으신가요? 피즐 맞추기를 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양의 피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그란 모양을 좋아한다고 해서 동그란 모양의 피즐만 모아두면 그림을 완성할 수 없죠. 때로는 세모난 피즐, 네모난 피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비뿔어진 피즐, 여기저기 모가 난 피즐, 이렇게 다양한 피즐들이 모일 때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피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라지만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내 손에 든 피즐이 마음에 들지 않고 주님의 거절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내 손에 있는 이 피즐, 내게 주어진 이 상황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은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혹시 ‘주님은 왜?’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신다면,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예”라고 믿음으로 고백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병찬, 보통 목사의 10분 성경

자녀를 위해 기도 하며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넌 최고야. 넌 천재야." 같은 너무 과한 칭찬이나 과한 관심, 결과에만 연연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럼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받아서 키우는 방법이지요.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님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어린이주일인데요. 오늘은 자녀와 다음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치유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한 주간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섬김의 교회 를 방문 하신 분들을 하나님 의 사랑 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헌기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5월 가정의 달

천국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이웃과 세상과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2023 주제 말씀 :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2023 표어 : 성장하는 교회

1. 어린이 주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이 사랑받으며 또한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2. 신앙 성장/성숙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추구하는 주간입니다.
3. 어버이 주일(다음 주일)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4. 한 가족 예배 5월 28일 성령강림 주일에는 Mother's Day를 기념하며, 6월 4일은 졸업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5. 졸업 Banquet High School을 졸업하는 자녀들을 축하하는 감사행사입니다. 일시: 5/26(금) / New Life Church
6. 야외예배 6월 1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7. 금요 찬양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찬양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5월 사역

어린이 주일(7)

성장/성숙 주간(7-13) Mother's Day(14)

소금/빛 된 주간(14-20)

섬김 리더 모임(21) 선교 주간(21-27)

졸업 Banquet(5/26, 금)

선교 주일/사역 친교(28)

생일 축하합니다

구 민(8) Jacob Kim (7) 구민우(16)

한국 방문

김신실 집사 / 최선운 집사



말씀 개요 고전 9:1-14 / 외면과 오해도 극복하는 사랑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오해를 받아도 사랑할 수 있는가?

복음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고,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울은 권리를 내려놓고 경비를 자급하며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고 자신을 오해하고 배척하는 이들을 실제적 비유(군사, 농부와 목자)와 말씀으로 인도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답게 남의 오해도 외면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

영교 요약

고린도교회에서 바울은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절제하며 섬기지만, 고린도 성도는 등을 돌리며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한다.

사례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경비를 충당하는 바울의 모습은 감사보다 사도가 아닌 오해를 초래했다.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도전하는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첫째,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지원으로 전도사역을 할 권리가 있음을 가르쳤다. 정당한 품삯을 받는 군사, 농부와 목자를 예로 설명한다. 즉,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자 농부이며 목자로서 마땅히 대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바울에게는 복음사역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보다 우선이었다. 복음 사역이 생계나 명예를 위한 수단이란 오해가 없고 복음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울은 고생을 자청했다.

교회나 성도에게 유익이 되도록 섬기고 시험에 빠지는 성도가 없도록 배려하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까닭은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고린도의 성도는 계속 오해를 했지만, 바울은 그런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섭섭할 법도 한데 원망하지도 않았다. 끝까지 사랑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실천하려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오해를 받아도 멈추지 않는 사랑, 알아주지 않아도 참아 내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끝까지 사랑하자. 예수님 제자답게 사는 길이다.

기도제목

1. 2023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열매 맺도록
2. 모든 성도가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성훈련하도록
3. 섬기는 목회자의 강건함과 영적 능력을 위해
4.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졸업/진학을 앞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학업과 미래의 꿈을 가지도록
6. 장성한 자녀들의 직장과 결혼을 위해
7. 직장에서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
8. Oikos 가정사역을 통해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예배 섬김이

주일 기도 인도 5월 7일 김 훈 태 집사
 14일 박 진 성 집사
 21일 김 윤 경 사모
 28일 구 민 집사

주일 헌금 위원 5월 7일 오 정 은 / 구 민 집사
 14일 구 은 강 / 최 내 권 집사
 21일 최 내 권 / 구 은 강 집사
 28일 유 병 하 / 오 정 은 집사

주일 안내 5월 구 민 집사
 6월 최 내 권 집사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태영 전도사
(JACOB KIM)